

제주도 이어 육지상륙에 성공한 (주)도암엔지니어링

- 우수한 인재양성으로 전문성 · 신뢰성 갖춰
- 사업영역 확대에 이어 최종 목적지는 세계



오관준 대표

최근 유가가 고공행진 중이다. 정부는 고유가 대책으로 안정적인 자원 확보와 동등하게 에너지절약에 심혈을 기울인다. 자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찾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도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육지에서 바다를 건너야 닿을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 묵묵히 에너지절약을 선도하는 기업이 있다. 주인공은 (주)도암엔지니어링(이하 도암). 이 회사는 도시계획 · 건축설계 · 토목설계 · 종합감리 등을 중심으로 미래 촉망받는 ESCO 사업과 신 · 재생에너지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면서 발빠른 행보를 늦추지 않고 있다. 사업분야 다양화와 물으로의 사업영역 확대, 제주도에서 불기 시작한 바람이 육지를 강타하고 있다.

글 _ 김진철 기자(kjc@energytimes.kr)

“제주도 유일의 ESCO기업에서 전문인력 갖춰 육지 상륙에 성공”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 유가, 그 대안으로 정부는 자원확보와 더불어 에너지절약이라는 시책을 내놓았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05년 3월 도암은 에너지절약기업으로 정식 등록돼 3년 가량이 지난 오늘 보다 전문화되고 있다.

제주도에서 도암은 알아주는 실력파로 통한다. 물론 제주도 유일의 ESCO업체라는 점도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바다 건너 육지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등 간접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도암이 실력파로 인정받아 에너지절약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오관준 대표이사의 남다른 철학이 있었다. 오 대표는 “우리 회사의 경쟁력은 바로 전문인력 확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지속적인 인재 양성, 그것이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열쇠”였다고 덧붙였다.

이 철학의 배경에 대해 오 대표는 “임직원에 대한 지원은 제주도라는 지역적 이유로 생겨난 것”이라며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보다 자체 인력 양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었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사실 도암 임직원 대부분은 전기·소방·통신·환경·기계·토목·건축 등 각 분야별로 한 가지 이상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문상호 팀장은 “CEO의 마인드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다양한 전문인력과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함을 조화시킬 수 있게 됐다”며 “이것이 바로 도암이 다른 기업보다 기술력 면에서 앞설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도암의 다양한 인력 개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개발과 기술력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그 일환으로 도암은 전문 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학계 파트너는 제주대학교, 산·학 공동연구로 이론·현장기술을 기반으로 석·박사급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오고 있다. 오

대표는 “인재는 도암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화력 ESCO사업 진출 이보다 더 큰 실적 있나”

잡다한 말이 필요 없다. 도암은 한국중부발전(주) 제주화력발전소에 ‘고압전동기 가변속장치 설치공사’ ESCO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 실적만으로 기술력과 신뢰성 면에서 인정받은 것이나 진배없다.

우리나라 발전소에 제품을 납품하거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기술력은 충분히 인정받은 셈이다. 왜냐하면 신뢰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발전소의 사업 추진을 두고 ‘하늘의 별 따기’라는 루머가 나올 정도다.

2005년 7월 도암은 이 사업에 16억4000만원을 투자해 연간 4억3000만원에 달하는 에너지절감에 성공했다. 설치전과 비교해 볼 때 62%가량의 에너지를 절약한 셈이다. 이외에도 제주도 지역산업발전에도 일조했다. 이 사업으로 발전설비와 연계된 지역 중소기업의 설치시공과 유지보수, 관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전력변환장치를 이용해 고압전동기





▶ 가변속장치룸

가변속장치를 제주화력에 도입하는 것. 그 동안 에너지절약의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설비의 신뢰도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5사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도암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문 팀장은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암은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제주화력에 추가로 ESCO사업을 추진해 연간 2억 3000만원에 달하는 절감효과를 거둔 바 있다. 도암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전소에 대한 ESCO사업의 행보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의 최대 수혜자인 제주화력 관계자는 “이 사업의 결과 발전설비는 가변속장치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됐고 발전원가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며 “투

자비 회수기간 중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져 효과적인 관리가 되고 있다”고 사업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에너지절약 홍보 앞장에 이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빛 나눠줘”

도암은 에너지절약 홍보를 강화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빛을 나눠줄 수 있는 사업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복지지원 사업. 이 사업은 기존의 40W 형광등 2개를 32W 고효율 형광등 2개로 교체해 8W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 물론 더 환해졌다.

도암과 이 사업의 인연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첫 사업의 대상은 광주와 전남·북, 제주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71개소. 이 시설이 도암의 등

기구교체사업의 첫 수혜자다. 이듬해 7~9월에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 제주도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 오관준 대표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회사는 이윤을 떠나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에게 밝은 빛을 나눠주기 위해 사업 참여를 결심했다”고 참여계기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사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제주도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주로 숙박시설과 호텔 등에 ESCO 사업을 많이 제안하고 있다”며 “이 사업에 대해 무료로 추진된다고 알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 애로사항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ESCO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에 대한 새로운 도전 사업영역 확대서 이제는 해외로”

현실에 머물 수 없다. 도암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바로 신·재생에너지사업. 세계적으로 이슈로 올라있고 유망사업으로 불리는 이 사업에 대해 도암은 지난해 2006년 신·재생에너지기업으로 정식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식을 마쳤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를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건설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에 대한 도암의 주요 사업은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제주도 그린빌리지 사업을 설계·감리하는 것.

이미 가능성이 열렸다. 동광문화마을을 비롯한 자구내포구 150kW 태양광발전설비, 환경풍력 750kW급 2기에 대한 풍력발전설계 등에 관한 인허가 업무에 참여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제주도에 풍력발전 인·허가와 계획시설설계를 3개 단지에 대한 90MW도 수주했다.

앞으로 도암의 행보에 대해 문 팀장은 “ESCO사업은 진행형”이라며 “에너지를 사용한 사업장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전기설비 분야와 기계분야의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대표는 “도암은 시대적 필요에 의해 더욱 요구되는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라며 “이를 위해 건축설계와 국토설계(도시계획, 단지조성), 토목(도로 상하수도 토목구조), 건설관리(감리 CM), 전기사업(ESCO사업,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안전관리대행) 등 제주에서 유일하게 엔지니어링 전 분야의 설계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오 대표는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을 물론 다양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



▶ 모터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장면



▶ 인버터실로 이동중인 장면